

# 2012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 7.26(목)

## 위원 주요 발언 내용

### ▲ 올림픽 보도 철저히 준비해야

- 비인기 종목 등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림픽 관련 다양한 뉴스 보도 필요 (최종준 위원)
- 메달의 색깔과 개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최근 스포츠과학 내용을 추가해 재미와 관심을 더 불러 일으켜야(이상목 위원, 이석구 위원)
-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로 볼지 '문화 예술 종합 이벤트'로 볼지 개념 정의 필요. 뉴스 다큐멘터리 포맷도 바람직해. 다양한 소재 발굴 노력 필요(김경모 위원)
- 선정적인 보도 용어가 많아. 예를 들면 전략, 고지, 메달 전선, 한풀이 등은 자제 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했으면(이석구 위원)
-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도 부탁(이석구 위원)

### ▲ 기상 뉴스 심층 보도해야

- 강수량 예보시 강수량별로 지역을 정확히 나눈 발표 필요(박영상 위원장)
- 기상에 대한 중장기 예보와 재난 예방차원의 많은 관심 필요,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심층 기획보도 필요(이상목 위원, 차경애 위원)
- 폭염 관련 보도로 시골 온실, 산업 현장 일꾼들 일하는 모습의 스케치 보도는 식상함. 폭염 대비 및 예방 등 심층적 보도 필요(김경모 위원)
- 폭염 기사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보여주고, 쪽방촌 노인을 보여주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그림임(한박무 위원)
-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심층적 기획 보도 필요(차경애 위원)
- 베이징 홍수 문제나 미국 서부 가뭄 문제 등 세계 기상 이변에 관해 다뤄야(한박무 위원, 이상목 위원)

### ▲ 프로그램 콘셉트 명확해야

- '글로벌Y' 콘셉트가 아직도 정립이 안됐다고 생각. 일반 뉴스에서 이미 방송한 뉴스를 블록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. 별도의 심층 보도 있어야(한박무 위원)
- '트리맵뉴스' 정체성 의문. 이미 보도된 뉴스를 그대로 읽는 데 불과. 기사에 대한 댓글, 반응, 논평 해석이 있어야 진정한 인터랙티브 뉴스(김경모 위원, 박영상 위원장)

- '찾아가는뉴스'도 정체성 의문(박영상 위원장)

#### ▲ 기획 및 심층 보도 이뤄져야

- 중앙전력관제센터 관련 방송은 잘 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전력량 상승으로 섰다운 문제, 복구 시간, 대처 방안 등 심층 보도 필요(홍승용 위원)
- 여수 엑스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보도가 필요(최종준 위원)
-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잡아 심층 보도함으로써 여론 형성의 좋은 사례와 함께 뉴스Y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(이상목 위원)
-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연합뉴스 법조팀 및 뉴스Y는 판결 결과 보도에만 중점. 현장 취재는 타 방송사 언론사에 비해 부족해(임영호 위원)
- 단신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길게 보도하면 주목도가 떨어짐. 보건복지부 발표 중계의 경우 생중계로 물릴 게 아니라 도표 하나로 정리하면 충분(박영상 위원장)
- 22일 자외선 차단제 효과 관련 후속 보도에서는 제조사의 반응도 추가해야. 소비자단체 검사 또한 사실인지 심층 보도 필요(박영상 위원장)
- 17일 제헌절은 기념식만 생중계하는 데 그침. 헌법 수호, 법 질서 등에 대한 기획 기사도 필요(박영상 위원장)
- 11시와 12시 뉴스 새누리당 발표, 뉴질랜드 축구 등 뉴스가 똑같음. 저녁 10시와 11시에도 마찬가지. 심층 다양화 필요(박영상 위원장)
- 공옥진 여사 관련, 심층 보도 아쉬워(김정연 위원)
- '안철수의 생각' 역임자 제정임 교수 심층적 인터뷰 해야 (김정연 위원)
- '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'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 보도 필요(김정연 위원)
- 영향력 있는 사람의 토크쇼 선점해야(홍승용 위원)
- 차별화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경제. 정치 토크쇼 못지않은 경제 토크쇼도 거물급 멘토들을 섭외해서 진행해야(홍승용 위원)

#### ▲ 방송 스킬 능력 더 키워야

- 김영환 관련 뉴스를 3분 정도로 길게 했는데 내용과 순서가 아쉽고 화면이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했음. 중간 자막 등으로 보완했으면(한박무 위원)
- 김두관 관훈토론회 중 안내 멘트 없이 갑자기 김영환 관련 보도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. 앵커의 중간 안내 등 매끄러운 진행 필요(박영상 위원장)
- 올레길, 통영 등 살인 사건의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필요. 두 건은 공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해 공개 필요(임영호 위원)
- 그래픽 활용도가 떨어짐. 그래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절실(임영호 위원)
- 원내대표 원구성원 타결 보도에서 기자나 앵커 멘트 없이 한 장면이 길게 나온

것은 개선해야(차경애 위원)

- 7월 8일 옴부즈맨 방송시 최영재 교수가 정치뉴스를 분석할 때 일반 보도 뉴스와 소리가 겹쳐서 나와 듣기 거북했음(김정연 위원)
- 일부 뉴스에서는 필요 없는 영상이 포함되거나, 뉴스내용에 관련된 상호 표시, 문자를 오랫동안 노출시킴으로써 집중력 저하(최종준 위원)
- 인터뷰의 내용과 자료화면이 잘 매치 돼야. 유창선 정치평론가의 인터뷰중 민주통합당 관련 내용에서 새누리당 관련 자료화면이 나옴(이석구 위원)

#### ▲ 보도 배경 등 개선해야

- 뉴스 중계 중 보도국의 배경이 뉴스의 집중에 다소 방해(최종준 위원)
- 앵커 뒷 배경에 서울시내가 보여지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는 화면이 밝지 않음.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야(차경애 위원)

#### ▲ 화면 구성 개선 및 하단 흐르는 뉴스 속도 조절해야

- 화면구성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음. 뉴스Y만 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임. 또 하단 흐르는 자막 속도가 과학적인지 알아봐야(한박무 위원)
- '많이 본 기사'는 속도가 빠름. 속도를 늦추면 더 보기 좋아(최종준 위원)
- 올레길, 통영 등 살인 사건의 범인 얼굴 공개에 대한 논의 필요. 두 건은 공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해 공개 필요(임영호 위원)
- 화면 디자인이 혼란스러워. 깔끔함, 선명함을 위주로 개선해야(홍승용 위원)

#### ▲ 프로그램 편성 변경해야

- 지방시대 편성 늘렸으면. 지방 취재망 활용 못해 아쉬움(김정연 위원)
- 정시에 뉴스를 꼭 해야 하는가. 다른 채널에서 광고를 할 때 뉴스Y는 10분전에 방송을 함으로써 차별화하면 어떨지(홍승용 위원)

#### ▲ 뉴스 초점 및 균형 필요

- 통영, 올레길 사건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이 흐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도돼야(차경애 위원)
- 정시에 뉴스를 꼭 해야 하는가. 다른 채널에서 광고를 할 때 뉴스Y는 10분전에 방송을 함으로써 차별화하면 어떨지(홍승용 위원)

#### ▲ 기타

- 뉴스Y는 KTX를 홍보수단으로 잘 활용해야. KTX용으로 엔터테인먼트 방송 강화 필요(김정연 위원)
-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체포시 '헌정사상' 처음이라는 표현을 모든 언론에서 썼는데 꼭 필요한 표현인지 의문(김정연 위원)

- 여야 상임위원 자리 경쟁에서 '꺾차다' 표현은 옳지 않아(차경애 위원)
- 리설주 공연단 사진 뉴스를 보여주며 어렸을때 모습일 것이라고 추측 보도함. 낚시성 보도는 지양해야(김경모 위원)
- 영상 편집하면 편집인 이름만 들어가고 리포터 이름은 자막에 안들어 가고 있음. 리포터 이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막으로 나가야(홍승용 위원)
-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영상소개 화면에 방영된 날짜 표기 필요(이상목 위원). (끝).